

* 2017.9.26 14:00부터 보도 가능

말 씬 자 료

2017. 9. 26. (火) 14:00 ~ 15:30
금융투자협회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 종 구

1.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오늘 가을이 오는 길목에서
자산운용사 대표님들과
연구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분들을 만나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2. 자산운용산업 현황 및 평가

그동안 자산운용산업은
우리 금융산업을 리드하는 '선도자'로서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최근 5년간
회사수는 120%, 임직원수는 47%,
수탁고는 64% 증가하는 등
여타 금융산업과 비교할 때,
괄목상대(刮目相對)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 회사 수(개) : ('12) 84 → ('17.6월) 185 (120%)
임직원 수(명) : ('12) 4,625 → ('17.6월) 6,819 (47%)
수탁고(조원) : ('12) 618 → ('17.6월) 1,015 (64%)

이와 같은 큰 성과는
자산운용업권에 종사하는 임직원분들의
홀린 땀과 혼신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도 자산운용업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우선, 운용사의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춰,
‘혁신적 아이디어’가 있는 금융인이라면,
적은 자본으로도
손쉽게 자산운용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 요건(60→20억원)을 완화
* 전문사모운용사(개) : ('15말)19 → ('16.6월)64 → ('16말)91 → ('17.6월)110

성과보수 공모펀드, 액티브 ETF,
사모투자 재간접 펀드 등
혁신적 펀드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자율성’을 제고하고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사모펀드의 규율체계를 단순화하고,
사모펀드 설립시 사후 보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운용규제도 개선*하였습니다.

* 투자대상(증권, 부동산 등)별 펀드 설정·운용 → 한 펀드내 운용 자율성 부여

이와 함께, 소규모 펀드 정리,
펀드통합공시시스템(펀드 다모아) 구축 등을 통해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하였습니다.

작년 말에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제정하여,
자산운용사가 고객의 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산업은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에 대한 ‘책임’과 ‘신뢰’ 확보라는
시대적·사회적 기대와 요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동안 자산운용시장이
진정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 왔는지,

투자자의 이익보다는
업계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지는 않았는지
냉정하게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투자자 중심의
사모펀드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반면,
공모펀드는
부진한 수익률로
일반 국민들이 외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일임·사모시장 연간성장률(%) : ('13)9.8 ('14)10.5 ('15)24.9 ('16)12.5
* 공모/사모펀드 수탁고비율(%)
: ('05)157 ('07)233 ('09)194 ('13)128 ('15)107 ('16)85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 가치 제고, 투자자 이익 증진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자산운용시장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앞으로 추구해야 할 '큰 그림'을 그리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전문가적인 고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발표 시작 -----

- ① 자산운용시장 신뢰성 제고 방안(자본研, 10분)
- ②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방안(기업지배구조원, 10분)

< 토 론 >

----- 마무리 발언(토론 종료 후) -----

< 마무리 말씀 >

3. 자산운용산업 발전 방향

오늘 귀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산운용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자양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정부는 자산운용시장 ‘**성장의 과실**’이
일반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투자자 중심**’으로
시장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회사별·매니저별 펀드운용능력 등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적시**’에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판매망을 보다 확충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펀드를 판매할 때,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펀드**’가 추천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역량있는 자산운용사와 금융인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창의**’와 ‘**혁신**’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들은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자산운용사의 추가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부실 자산운용회사가 시장에 고여 있지 않도록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셋째, 펀드 패스포트 등을 통해
자산운용산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글로벌화는
‘**개방**’과 ‘**도전**’이라는 양방향의 가치입니다.

‘**개방**’을 통해, 해외 우수 펀드에 대한
국내 투자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한편,

‘**도전**’을 통해 국내 자산운용사가
넓은 해외시장을 진취적으로 개척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스튜어드십 코드의 확산과 내실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의결권 행사와 적절한 주주활동을 통한
기업과의 적극적인 대화가
기관투자자에게 주어진 '소명(召命)'이라는 인식이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기업의 중장기적 성장을 통해
기업은 물론, 자산운용사와 투자자 모두가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는 신뢰가 생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마무리 인사말씀

4차 산업혁명, 핀테크 등
일련의 기술 혁신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우리가 직면하게 될
금융환경 변화의 속도와 그 폭을
예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자산운용산업이
앞으로 나가야할 좌표를 설정하는 일 또한
지난(至難)한 과제가 됐습니다.

'불확실성'이라는 바다에서,
자산운용산업이 가야할 항로를 제시해 주는
'등대'와 같은 가치를 꼽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고객으로부터의 신뢰'를 꼽겠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선량한 자산 관리자'로서
그 본연(本然)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국민과 더불어 공생(共生)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자산운용산업이
우리 금융산업의 '대표 선수'로서,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